

주거의 근린환경과 중학생의 인성 특성과의 관계 연구

김진영·곽경숙

(대전 용천고등학교·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본 연구는 주거의 근린 환경이 청소년의 인성 특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올바른 자아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교육 환경으로써 주거 환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를 통한 문헌조사와 질문지에 의한 조사연구를 하였다.

조사대상은 전라북도 익산시의 A 남자 중학교 2학년 210명, B 여자중학교 2학년 220명으로 총 430이었으며, 회수된 질문지 중 기입이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406부(회수율 96.7%)를 통계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01년 5월 16일부터 5월 26일 까지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Program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t-test, 일원변량분석, Scheffe의 다중범위검증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의 근린 환경 중 사회적 환경에 따른 인성 특성은 도둑이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안전도가 높고, 분리수거나 상부상조 등 이웃 간에 협조도가 높으며, 이웃과 생활수준이 비슷한 집단의 학생일수록 여러 인성 특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둘째, 주거의 물리적 환경에 따라서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주변 공기가 맑으며, 동네가 청결하고 놀이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서 집 주변의 방음이 잘 되어 있는 집단에 속하는 학생일수록 여러 인성 특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셋째, 주거의 구매시설 환경에 따라서는 집 주변에 대형 할인매장 등과 같은 편리한 구매 시설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집단에 속하는 학생일수록 여러 인성 특성에 높은 점수를 보였다.

넷째, 주거의 건강 시설 환경에 따라서는,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시설이나 남학생의 경우 스포츠 레저 시설을 이용하는 횟수가 많아지는데 이러한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일수록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여러 인성 특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주거의 복지 및 공공 시설 환경에 따라서는 집 주위에 여러 공공 시설을 사용하기에 편리한 집단에 속하는 학생일수록 여러 인성 특성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주거 환경은 학생들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성장기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 발달을 위해서는 주거 환경은 물론이고 정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인성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 근린 환경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